

□ 특집 □

멀티미디어시대에 있어서의 시인의 역할

원 구 식[†]

◆ 목 차 ◆

1. 시대는 그 시대의 양식을 만든다	4.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양식의 변화
2. 운문의 시대	5. 산문시대에서 운문의 시대로
3. 산문의 시대	

1. 시대는 그 시대의 양식을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문학과 역사에 대한 논의는 많은 문학연구가들의 좋은 탐구의 대상이 되어왔다. 역사는 이미 일어났던 일을 다루며 문학은 일어날지도 모를 일을 그린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떠난다면, 문학과 역사에 대한 논의는 대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문학이 역사의 산물로 그것이 속한 시대와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문학은 그 시대에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읽힌다는 초월성이다.

글의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학이 하나의 양식으로 시대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굳이 문학뿐 아니라 모든 장르의 양식이 그러하다. 즉, 서대는 그 시대의 양식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시나 소설, 가요나 영화, 혹은 그리스 시대의 연극, 영·정조 시대의 판소리 등 모든 양식은 그 시대가 각기 만들어낸 양식이다. 이러한 양식의 변화는 그 시대의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운문의 시대

일찍이 시와 노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아득한 옛날 낙원이 있었다는 창세기나 신화처럼 영웅의 노래가 가득한 <일리아스>를 상기해 보자. 이 시기에 시가 종교적 기능을 대신하고 시인이 왕처럼 군림하였던 것도 실은 이 시대의 기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늘날 그 흔한 종지와 연필은 고사하고 그것을 기록할 문자마저 없었던 원시시대의 기술을 생각할 때 유일한 표현수단이었던 ‘말’은 기억하기 쉽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기 위해 운문(韻文)이 사용되었다. 이 시기엔 시가뿐 아니라 모든 글이 운문으로 쓰여졌다. 문자가 발생한 후에도 그것을 기록할 기술이나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기간 모두가 운문으로 쓰여졌다. 시인은 왕처럼 군림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당시 예술의 양식이 시와 노래와 춤 등이 한데 어우러져 종합적인(멀티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원시종합예술이라 부르는 이 형태는, 인접 장르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는, 멀티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 정희원 · 한국문연 시인

3. 산문의 시대

기술의 발전은 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장르의 구분이 생기기 시작했다.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예술의 양식이 종합적인 형태에서 갈라지고 전문화되어 갔다. 연극의 등장은 당시로서는 가히 혁명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문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연극의 대부분인 희곡은 여전히 운문으로 쓰여졌다.

그리스·로마시대에 연극이 발전한 것도 그 시대의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과 같은 TV는 고사하고 인쇄술도 없었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대형 극장에 운집시켜 극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 갈대를 두드려 만든 파피루스가 있었지만 거기에 문학작품을 필사하여 대량으로 보급하는 일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후, 시민사회의 대두와 함께 인류의 기술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은 소설이라는 양식을 만들어냈다. 종이에 대량으로 인쇄하여 널리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은 굳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을 하지 않아도 문학작품을 더욱 멀리 더욱 넓게 보급시켰다 산문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4.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양식의 변화

우리는 지금 첨단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시대·멀티미디어시대의 기술은 예술의 양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기술의 발전이 지금까지 가져온 양식의 세분화를 멈추고 이제는 종합화를 향해 그 걸음을 매우 빠르게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시와 소설, 사진, 회화, 음악 등 인접장르의 구분이 무너지고, 예술이 종합적인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이 시대의 기술이 우리에게 시도 쓰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 일을 동시에 쉽게 할 수 있

는 도구를 주었기 때문이다. 눈치가 빠른 독자는 알겠지만 그것은 컴퓨터의 등장이다.

아무튼, 이 시대가 만들어내는 예술의 양식이 종합적인 형태를 지향할 때 가장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변화는 소설의 쇠퇴와 시의 부흥이다. 소설의 쇠퇴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산문의 시대에 소설이 문학의 총아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이유가 서술과 묘사에 있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상매체가 발달하는 첨단 멀티미디어시대가 되면 소설의 서술과 묘사는 순식간에 영상으로 대체되어버린다. 오늘날 소설이 잘 팔리지 않는 이유는 소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구조적인 것이다.(생각해 보라. 소설 10만부만 나가도 베스트셀러라고 나라 전체가 들썩인다. 그러나 아무리 시시한 TV 연속극이라 해도 매일 수백만의 사람이 동시에 시청하고 있다. 소설가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소설은 통계적으로 이미 죽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소설의 몰락은 소설이라는 양식의 쇠퇴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사적 구조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첨단 멀티미디어시대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학의 양식이 어떠한 것이냐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영상매체가 발달하면 할수록 새로운 양식이 많은 문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럴 때 그 문자가 세련되고 압축된 운문, 혹은 시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 글의 지적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니다.

5. 산문의 시대에서 운문의 시대로

이 즈음에서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와 노래와 춤이 구분되지 않았던 원시종합예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운문의 시대, 시인이 왕이었던 시절을.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산문의 시대를 지나 운문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눈을 들어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우리는 곧 우리가 운문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광

고의 카피는 물론이고, 수십만의 청중이 운집하는 생음악 현장, 그리고 매일 차 안에서 접하는 대중가요와 노래방 등은 모두가 운문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대에 있어 시인의 역할이다. 앞으로 예술의 양식이 종합적인 형태를 취한다면 시인은 총감독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스토리와 같은 서사적 구조는 캐릭터 밑으로 들어오게 된다. 시인은 본래 이름을 짓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바야흐로 세상은 발전하고 우리 앞에 도래하는 첨단 멀티미디어시대는 문화가 상품이 되는 시대를 뜻한다. 시의 영역은 가요를 비롯하

여 멀티미디어 전반에 확대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운문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시인의 자각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다.



원 구 식

1955년 경기 연천 출생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중앙대 강사 역임
 시인
 월간 <현대시> 발행인
 월간 <PC아카데미> 발행인

'97년 1·3월 학회지 특집 원고 접수 안내

월/권호	특집주제	특집 담당자	위 원	접 수 마 감
1월/4권1호	CALS	조창현 교수(경기대) T : (0331)40-7538	전세용(통신기술) 이강호(쌍용정보) 최창원(한신대) 이재용(수원여전)	'96년 12월 30일한
3월/4권2호	Security	박우근 교수(광주대) T : (062)670-2389	유홍준(홍은출판사) 윤석환(ETRI) 박용범(단국대) 민태홍(인하전문대)	'97년 2월 15일한